



박근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풍자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홍성담(오른쪽) 작가가 24일 광주비엔날레재단에서 이우우 대표이사(왼쪽), 윤범모 책임 큐레이터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작품 사진 철회 의사를 밝히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파행 장기화땐 지역미술계 파탄 여론 갈린 지역사회 분열도 부담

### 홍성담 화백 광주비엔날레 '세월오월' 사진 철회 배경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으로 시작된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파행은 결국 홍성담 작가의 '작품 사진 철회 결정'으로 일단락 됐다.

홍 작가의 작품 철회 결정 배경에는 비엔날레 특별전 파행의 장기화가 광주미술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와 운영진 광주시장에 대한 불만과 일부 지역 미술인, 원로들이 드러낸 작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홍 작가는 2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광주시와 운영진 광주시장, 광주비엔날레재단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비엔날레 전문가는 비엔날레 이사장인 광주시장에게, 비엔날레 이사장은 비엔날레 전문가에게 서로 떠넘기는 이 지루한 광풍개임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동안의 현실이 안타까웠다"며 "전문가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광주시장은 자신이 비엔날레 이사장인 줄 모르는 이 황당한 현실은 '세월호'와 판박이처럼 닮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21일 홍 작가는 윤 시장, 이우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윤범모 전 책임큐레이터 등과 비공개로 만나 '세월오월' 전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나눴

### 일부 작품성 비난도 영향

### 광주시·윤시장에 불만 표출

지난 끝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윤 시장이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세월오월'의 전시 여부는 전문가에게 맡기겠다"고 밝힌 것에 따른 불만으로 해석된다.

특히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평소 진본이 있던 윤 시장에게 "이렇게 추잡하게 전개되는 상황은 자신의 우유부단한 성격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윤 시장은 직시해야 한다"며 날을 세웠다.

일각에서는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쏟아진 '세월오월'에 대한 일반인, 평론가, 지역 미술인들의 비평과 그의 태도에 대한 비난도 작품 사진 철회를 결정하게 된 배경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일부 비평가와 시민들은 "'풍자'와 '해학'을 찾아볼 수 없는 작품"이라며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홍 작가는 "원작 전체가 아닌 인터넷에 떠도는 부분 이미지만 보고 대중들이 판단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비평가들이 실제 원작을 보지 못하고 이리저리러쿵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불성실한 태도"라

고 말했다. 그는 또 자신을 지지해준 오원달체 등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면서도 지역 미술인과 지역 원로에 대해서는 섭섭함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번 사태에서 지역 미술인, 시민단체, 원로, 5월 단체의 의견이 갈리면서 지역 사회가 사분오열됐고, 이같은 파행이 월스트리트저널, 아트넷 등 해외 유수 언론과 미술잡지에 보도되면서 광주비엔날레는 국제적으로 망신을 사 사태수습에 대한 노력이 시급하다.

지역의 한 미술인은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되지만 작품만을 놓고 볼때 지역에서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불편해 하는 작품을 전시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홍 작가로부터 비롯된 이번 사태로 타격을 입은 광주 이미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광주비엔날레재단에 대한 개혁 작업을 시급히 진행했으면 한다"며 "누가 대표이사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보다 조직 전체를 놓고 큰 틀에서 먼저 살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광주비엔날레재단 관계자는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미 작품을 철거한 작가 3명의 작품도 다시 전시해 특별전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kki@kwangju.co.kr

### 세월호 대처 정국...여야 들따구 못찾고 평행선

# “유가족·시민 요구 무조건 받아라” 새정치 시도지사, 내부 자성론 비등

### 당 예산정책 협의회 대통령·여당 결단 촉구 지방재정 특별법 요구

유족으로부터 신뢰와 공감을 갖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신속하게 결론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속한 결론 못지 않게 제대로 해결하려는 끈기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경우에 따라 국민의 질책과, 유가족의 독촉이 있었지만 어정쩡한 사태로 끝내서는 재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새정치연합이 끝까지 책임지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새정치연합은 유족들 편에 선다는 자세를 가져서

이 이끄는 정부 문제로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감내하겠다고 나서지 않는 이상 해결 안 된다"라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세월호 유가족은 야당 산하의 국민이 아니고 대통령 산하의 국민이다"며 "따라서 당연히 대통령과 여당은 유가족을 적극 만나서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지방재정 부담을 유달하는 국가사업을 시행할 때는 반드시 지방정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국가보조사업 등에서 지방정부와 협의를 해 달라. 협의를 하라고 말하고 싶다"며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운영은 시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자치분권의 정신으로 가자"고 요구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야당도 국민을 향해 공약할 때 지방정부와 논의의 뒤에 발표해야 한다"며 "야당이 했던 공약들 가운데 국가가 지원하지 않았던 지방정부가 100% 안고 있는 것도 있다"고 지적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朴대통령·여당 언제까지 뒷짐만...

### “대통령 결단만이 해법” 커지는 목소리... 오늘 수석비서관회의 주목

세월호법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풀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면서 박 대통령의 반응이 주목된다.

우선, '유민 아빠' 김영오씨가 40일간 단식 농성 끝에 병원에 입원한 데다 세월호 유가족들도 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인근에서 철야 농성을 하고 있어 박 대통령의 심기가 편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도 "대통령의 결단만이 꼭 막힌 세월호 문제를 풀 수 있다"며 박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일단 청와대는 "세월호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할 문제로 대통령이 나서서 일선에서 처리할 필요는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세월호법 처리는 국회에서 할 일이라는 것이다.

또 여권은 야권의 요구를 정략적으로 판단, 대통령이 나서서 것을 반대하고 있

다. 야권이 모든 것을 대통령 책임으로 전가하려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유가족과의 면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출만한 메시지가 없어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월호 정국 악화가 해결되지 않고 국회 표류가 장기화될수록 결국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박 대통령의 부담으로 귀착될 것이라는 전망도 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선후 과정이 어떻게 됐든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진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뒷짐만 서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대통령과 여당이 경제 활성화와 민생 우선 메시지로 난국을 돌파하려 하지만, 세월호법을 풀지 않고선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딜레마도 있다. 세월호

법에 발이 묶여 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끝난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박 대통령과 여당이 나서서 유족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다. 세월호법 표류 정국에서 여권이 방어적 태도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현 국면을 타개하는 주장인 셈이다.

때문에 여야가 꼭 막힌 세월호 정국의 탈출구를 찾지 못한다면 박 대통령이 이를 타개하기 위한 모종의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리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법 문제에 대해 언급을 할지, 또 언급한다면 어떤 수준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지경기자jkpark@

## HNT 하나투어

www.HanaTour.com

###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장점

문의전화 062)228-1199  
주소: 광주 동구 불로동 96-7번지  
근무시간: 09:00~20:00(연중무휴)

상담 및 예약: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b>세정투어여행사</b> [삼우지구 세정아울렛 3층] 062)464-8000	<b>리치투어</b> [광안로 월계동 첨단1구역 1층] 062)431-0102
<b>가림여행사 수원점</b> [수원권은행거리 우림캐피탈 2층] 062)955-5230	

## London Stock Exchange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 [무안출발] 대만 전세기

9월 6일 출발 (추석연휴) 3박 5일

<b>대만 5일 '아류(지우루)'</b> 출발일: 9월 12일(금) 상해/항주/소주 4일 출발일: 9월 8일, 9월 29일(일) 상해/계림/양삭 4일	<b>대만 5일 '화현(아류/101빌딩)'</b> 출발일: 9월 10일(토) 상해/계림/양삭 4일
---	--

### [무안출발] 중국 여행

<b>대만 5일 '아류(지우루)'</b> 출발일: 9월 12일(금) 상해/항주/소주 4일 출발일: 9월 8일, 9월 29일(일) 상해/계림/양삭 4일	<b>대만 5일 '화현(아류/101빌딩)'</b> 출발일: 9월 10일(토) 상해/계림/양삭 4일
---	--

## 2014년 하나투어와 함께, 즐거운 여름휴가 떠나세요!

### 지역별 추천 허니문 상품

<b>AAW199-1 코사무이 6일</b> 출발일: 9월 10일(토) 상해/계림/양삭 4일 출발일: 9월 10일(토) 상해/계림/양삭 4일	<b>AAW103-6 도보델 5일/6일</b> 출발일: 9월 10일(토) 상해/계림/양삭 4일 출발일: 9월 10일(토) 상해/계림/양삭 4일
---	---

## HNT 하나투어 프리미엄 로드샵

### 광주 충장점 허니문 상담회

HAPPY HONEYMOON GUIDANCE

방문 EVENT!  
하나투어 두드러진 무료 음료권 증정  
달 여행용 트래블백 제공

예약 EVENT!  
하나투어 생당 하나투어 (40만) 마일리지 제공!  
달 '롯데면세점 5만원 선불카드 교환권' 제공  
(14년 12월 31일까지 출발객 한정)

셋 지역별 다양한 특전 제공

하나투어 마일리지 받고 다양한 혜택 누리기!

- 전세계 항공권/호텔 여행
- 문화공연 예매 하나투어 Ticket
- 쇼핑 여행용품/라이프스타일/에어컨/가전/식물/커피
- 생생서비스 모바일 상품권/마사지/주유/영화/카페 등

■ 여행상품 가격 포함: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선보험료, 관광진흥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 유류할증료: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환율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 가이드: 가이드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는 경우 별도 신청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 숙박: 숙박은 여행상품에 포함되어 있으며,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는다. ■ 관광: 관광은 여행상품에 포함되어 있으며,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는다. ■ 항공권: 항공권은 여행상품에 포함되어 있으며,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는다. ■ 여행일: 여행일정은 여행상품에 포함되어 있으며,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는다. ■ 여행일: 여행일정은 여행상품에 포함되어 있으며,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는다. ■ 여행일: 여행일정은 여행상품에 포함되어 있으며,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는다.